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

정읍시가 올해 4,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내 축산농가에 11대의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힘을 더한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조건에 적합한 11개 농가를 선정했다.

지역 내 가축사육 농가 중 한우 5개 농가와 돼지 6개 농가에 설치를 지원하며, 이달부터 설치작업에 들어가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대당 400만원의 사업비 중 50%인 2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있어 농장 단위의 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철저한 방역작업으로 악성 전염병 예방과 구제역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산림면 가평교 국비 지원받아 연내보수

고창군 산림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가평교 보수·보강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아 연내 이뤄지게 됐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21년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사업' 공모에 산림면 가평교가 선정됐다.

산림면 가평리 군도 23호선에 위치한 가평교(1996년 준공, 폭 8m, 길이 36m)는 지난 해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 교량을 지지하는 주요부재의 균열이 발견됐다. 결국 D등급(긴급한 보수 필요) 판정을 받아 차량통행에 제한이 이뤄져 왔다.

이에 올해 1월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했고, 사업 시급성을 인정받게 됐다. 군은 연말까지 국비 2억5000만원, 군비 5억4000만원 등 총 7억9000만원을 투입해 교대·교각 보강, 교면 포장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높을고창 쌀' 판로확보 총력

고창군-민·관, 민주 안규백 의원 찾아 판로확대 건의 안 의원 "전국에 최고의 쌀로 소비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

고창군 민·관이 함께 국회를 방문해 고창군 쌀 대표브랜드인 '높을고창 친환경 쌀' 판로확보를 위해 전 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고창군은 지난 2일 한결영농조합법인 박종대 대표, 대성농협 김민성 농협장과 함께 국회 안규백 의원을 방문해 '높을고창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다방면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높을고창 친환경 쌀'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재배돼 찰기가 좋으며, 밥맛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밥쌀용 최고 품질인 수광벼 품종을 우렁이농법과 친환경으로 재배한 후 친환경인증, 단백질 함량 6%이내, 특품의 출하등급 등 엄격한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대한민국의 최고 쌀이다.

안규백 국회의원도 고창에서 생산된 높을고창쌀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안



지난 2일 한결영농조합법인 박종대 대표, 대성농협 김민성 농협장과 함께 국회 안규백 의원을 방문해 '높을고창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의원은 "높을고창 쌀이 밥 지을 때 구수한 향이 일품이고, 식은 밥도 맛있는 인삼을 익히 들었다"며 "고향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이 전국소비자

들에게 브랜드 가치를 인정 받아 최고의 쌀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전북대, 농생명 전문가 육성

전북대 부안캠퍼스, 예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입학식

부안군이 전북대학교와 손을 잡고 학사과정의 농생명 전문가 육성을 위해 문을 연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예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가 2일 입학식을 갖고 본격 학사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입학식은 박현규 부군수, 전북대학교 류경선 학장, 박병모 학과장, 정안성 교수, 김동운 교수, 입학생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본관 217호실에서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부안군은 전북대학교와 함께 부안군 농생명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양성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공동으로 협력해왔다.

2020년 8월 19일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17일 학과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2020년 9월부터 리모델링 중인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부안읍 서외길 17, 구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는 3월말 개소식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학기 수업 장소는 전북대학교 전

주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학식은 지난달 입학 원서접수 및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한 30명의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일정 소개, 학교생활 및 주요 자치활동 안내, 사회적응업론 전공수업으로 진행됐다.

오는 4일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되며, 철학의 이해 교양과목과 사회적응업론, 재배학개론, 예코푸드론, 농식품소비론 등 전공분야 수업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대학은 학과과정을 통해 예코농산업벤처산업기사, 사회적 자유농업사, 전농약선승식조리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군은 우수인재 양성을 주도해 지역특색에 부합하는 농업 생산기반 구축 및 농산업벤처창업 등 신소득 분야 활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미래농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부안군과 전라북도의 농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다수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코로나19 예방 올해 벚꽃축제 취소

다·라하리 방문 자제 홍보, 천변로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매년 봄 정읍천 일원에서 열리던 정읍 벚꽃축제가 올해도 취소된다.

정읍시는 4월 초순에 개최 예정이었던 '2021 정읍 벚꽃축제'를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코로나19로부터 위험도가 낮은 음악과 빛을 테마로 행사 개최를 검토했다. 하지만 일 평균 신규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300~400명대 수준이

고, 전국의 유명한 봄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 벚꽃축제 개최에 대한 정읍시민들의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시는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벚꽃축제 개최 여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 시민 887명 중 502명(67.7%)이 벚꽃축제 개최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했음에도 지난해 다·라하리 개통과 함께 지리적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벚꽃 만개 시기에 많은 상춘객 방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방문 자제 홍보와 함께 작년 이어 올해도 천변로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대비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세계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감안해 벚꽃축제 취소를 결정했다"며 "아쉬움이 크지만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수, 3.1절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유기상 고창군수가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산림면에 거주하는 신중주 선생의 후손 신유순씨와 유금동 선생의 후손 고희류씨문중사무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회생과 헌신에 준경과 감사를 전했다.

신중주 선생은 1864년 11월 4일 부안면 조양리 태생으로 1906년 2월 5일 최전구선생과 더불어 면암 최익현의 진을 찾아가 군자금을 전달했다. 1914년 2월에는 독립의군부 참모관에 임명

돼 활동했다. 공로를 인정받아 1893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유금동 선생은 1909년 9월 15일 아산면 남산리 태생으로 고창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 중 1930년 1월 광주학생독립운동 시위가 전해지자 동급생 등과 함께 무기명휴를 단행하다가 수감돼 혹독한 고문으로 6월2일에 옥중에서 순국했다.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대통령표창, 1991년 건국훈장 애국

장을 추서했다. 현재 아산면 주진리 산11번지에는 현충시설로 지정등록된 순국사유금동기념비가 건립돼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발간한 고창출신 독립운동가 96명과 관련 기념물을 정리한 '고창의 의병운동과 독립운동가' 자료집을 바탕으로 현충시설 외 미지정 기념물 여건을 검토해 1500만원을 투입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의향고창의 주춧돌이 된 선조들의 공훈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교육청소년과는 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했다.

부안 교육청소년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부안군 교육청소년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지역내 유관기관(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학교폭력 없는 우리학교 우리가 만들어요'라는 슬로건으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안여자고등학교 정문에서 인성담담교사와 학생부, 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부안교육지원청의 협조 아래 진행됐으며 신입생 및 재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새 학기 시작을 축하하고 건전한 학교문화

창작 및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 부안군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위기(가능)청소년 및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 등 긴급지원(의료 및 학업지원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